

# “외환銀 법원 판결 이전 매각 가능”

##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 “싱가포르개발은행 등과 협상”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 기업들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10일 뉴욕 웨라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뤄진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자본유출을 높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매각 노력과 관련해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한 이후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관심을 보여 상의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다른 많은 국가도 협상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매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외환은행을 2003년부터 보유하고 있는데 최선의 인수를 만나면 팔 것이다. 특정한 시간을 말할 수는 없다. (조건이 맞으면) 연내에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각시기가 내년 혹은 내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후 한국 탈출설에 대해 “한국에 있

는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한국의 투자 자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며 앞으로 10년 이상 한국에 남아 투자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1991년에 설립된 론스타는 약 20조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PDF)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벨기에와 영국,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소 독자 브랜드

### 4년·7억 소요

중소기업이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안착시킬 때까지 평균 4년의 시간과 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가 고유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 1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브랜드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때까지 4~7년이 걸린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이러 1~3년이 걸린다는 응답이 34.4%, 10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11.5%로 나타나 브랜드가 시장에 정착하기까지 평균 4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개의 고유 브랜드에 투자되는 평균 비용은 ‘1억원 이하’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5억원 이하 25.9%, 5~10억원 미만 16.4%로 조사됐으며 평균적으로는 6.9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는 이유로는 ‘독자적인 생산·판매역량 구축’ 때문이라는 응답이 6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33.1%),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22.9%)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의 개발방법은 창업자의 아이디어(31.4%)나 최초의 기업명이 현재의 브랜드로 쓰이는 경우(23.7%)가 대부분이었으며 브랜드 개발 이후 ‘대외 이미지 개선’(53.8%)과 ‘생산 및 마케팅 역량 향상’(49.5%), ‘거래처 증가’(46.2%)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엔저 장기간 지속

### 국내 수출기업들

### 구조조정 등 필요

엔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근본적 방법으로 수출부진에 대처해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김의수 재정경제부 일본 주재 재경관은 10일 ‘최근 5년간 엔화 동향과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및 이에 따른 환율 조정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쿄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21.74엔으로 3월초 115엔대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기타 통화에 대해서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일본 경기회복의 핵심 원동력인 수출호조는 환율 하락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7월 일본은행이 제로(Zero) 금리를 해제한 뒤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지만 아직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엔화자금 유출(엔캐리 트레이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엔화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벤츠 ‘명품 마케팅’

삼성전자가 10일 최근 출시한 ‘미니스커트폰’(SCH-C220)과 세계적 명차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를 연계, 명품 마케팅에 나섰다. 국내에 시판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차종인 S클래스, SL클래스, SLK클래스 등 세단과 고성능 AMG 모델, 로드스터 모델에 삼성전자가 ‘미니스커트폰’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된다.

/연합뉴스

# 한국 설비투자 ‘IT 편중’ 심각

## 현대경제연구원 60~80% 차지...산업구조 불균형 심화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정보기술(IT)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하게 경기의 부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균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설비투자 행태의 한일 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IT산업이 60~80%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도가 매우 심하다”면서 “이에 따라 IT경기의 부침에 과도하게 민감한 불균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IT에 편중된 것은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화학·자동차 등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데다 새로운 설비투자 수요를 창출시키는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반면 일본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05년 현재 IT 20%, 자동차 40%, 화학·기계 각 20% 안팎으로 주요 산업별로 고른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 업체들의 신형차 생산체제 구축, 석유화학업체들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지 분야 설비능력 확대에 힘입어 IT경기와 상관없이 설비투자의 기복없는 증가세를 기록중이라고 연구원은 말했다.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가 이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차 수
01 04 08 13 37 39	0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5,030,040,150	2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0,894,636	41
3 5개 숫자 일치	1,602,945	1,046
4 4개 숫자 일치	61,553	54,480
5 3개 숫자 일치	5,000	940,827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3조 365419
2	5억	3조 365418 3조 36542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22161
5	1만	각조 465
6	2천	각조 12 각조 25
7	1천	각조 0 각조 2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대학교다자인혁신센터	2007년도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1	062-670-2744
(주)그린텔	광주/목포/KTF텔레콤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6/13	042-223-4900
삼성서비스 동광주지점	삼성서비스센터 접수 여사원 (동광주지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3	062-525-9702
(주)호남계기광주영업소	경리부 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6/14	062-382-6822
코디웨이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4	062-603-4188
케이머익	창고 관리자/매장관리, 판매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6/14	062-944-0030
(주)HRN	남녀무관/SK텔레콤 114상담원 -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15	062-529-2671
광주중합원탈	전시회, 박람회 행사 렌탈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15	062-529-4665
(주)세광에스텍	선박제조업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1-464-9980
(주)대우자동차용봉영업소	GM대우자동차 정규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524-4400
(주)백제소프트	웹마스터/쇼핑몰관리자 php기능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5	010-2601-0006
청해중합원탈	건설현장 공무	초대졸/경력1년	2200~2400	06/16	062-654-9491
TSM PLANT	경리 회계업무 및 캐드작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972-2071
(주)일정	자재구매관리, 현장 생산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16	062-951-88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민속놀이 기념주화 발행

앞면



뒷면



전통민속놀이를 소재로 한 시리즈 기념주화가 올해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발행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일 탈출을 소재로 한 전통민속놀이 기념주화를 8월 1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한이 자체 기획에 의해 발행하는 전통민속놀이 기념주화는 올해 ‘탈출’ 소재 주화에 이어 2008년 ‘강강술래’, 2009년 ‘영산줄다리기’ 소재의 주화가 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이통 마케팅 경쟁

### 사기전화 극성

이동통신 업계가 마케팅 경쟁에 전문학적 액수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칭한 사기성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SK텔레콤을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 검찰,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한 사기전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의 마케팅을 빗자한 사기전화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은 “요즘 SK텔레콤을 사칭하는 전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제휴해 고객들에게 과격적인 할인가로 리포트 회원권 또는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사기전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성 전화 확산은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올 1분기 마케팅 비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 기간에 작년 동기보다 33.3% 많은 5천866억원을 각종 마케팅에 투입했고 제휴업체만 90여 곳에 달해 가입자가 제휴업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른바 ‘공짜폰’이 넘쳐나면서 일부 대리점이 이를 악용해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고 단말기 대금까지 청구하는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입차 가격 인하 ‘레이스’

## 환율 하락 마진 여유... 젊은 층 끌어들이기

수입차업체의 가격인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업체들 경쟁이 치열해진다. 환율하락의 여파로 가격을 내리더라도 마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2008년형 포드 뉴 이스케이프(New ESCAPE)의 신차 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나서면서 2.3 XLT 모델의 가격을 2천970만원(부가세 포함)에 맞췄다.

포드의 수입차 가운데 첫 2천만원대 SUV 모델이 될 이 차는 대폭적인 스타일의 변화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주행시스템 및 편의사양, 안전장치 등을 감안하면 인하폭이 종전 모델과의 차이(30만원)를

크게 뛰어넘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포드가 내놓은 뉴 이스케이프는 2.3 XLT와 3.0 XLT, 3.0 리미티드(Limited) 등 세가지 모델이다.

2.3 XLT는 최고출력 155마력에 최대토크 21kg·m를 내며, 투톤 가죽시트, 트립 컴퓨터, 오토랜프 등 고급 사양들을 추가했다. 3.0 XLT와 3.0 Limited 모델은 최고출력 203마력과 최대토크 26.7kg·m를 내는데 가격은 3천310만원, 3천686만원이다.

실내에 실내의 온도와 공조장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탑 오브 데시 디스플레이와 방울 필름을 삽입한 특수 앞 유리, 방음소재 헤드라이너, 두꺼운 카펫, 노트북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넓은 센터 콘솔 등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 취업시장 최대 이슈 ‘한미 FTA 이후 고용 전망’

올해 상반기 취업시장의 최대 이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고용시장 전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조사 회원인 구직자 1천875명을 상대로 ‘상반기 10대 취업뉴스’를 뽑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미 FTA 이후 고용시장 전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4%로 가장 많았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일자리 증감과 고용안정성 등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종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의 설문조사가 쏟아졌지만 구직자는 물론 기업과 채용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 FTA 시대 취업전망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제협상전문가, 전문법률가, M&A전문가, 신약개발자 등이 한미 FTA 시대 유망

직종으로 지적됐으며 전문성, 글로벌마인드, 외국어 능력 등이 구직자의 필수역량으로 꼽히는 등 관련 소식이 잇따랐다.

2위는 ‘채용시장 UCC 열풍’(17.9%)이 차지했다. UCC가 자기PR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면서 UCC 동영상 기획이나 촬영, UCC 모니터링 등 새로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을 이었으며 구직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입사서류에 UCC 동영상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대기업 56곳의 취업경쟁률이 평균 116대 1에 달했다는 소식이 15.7%로 3위에 올랐고 2012년에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금융자산운용가’가 선정됐다는 뉴스는 4위(13.2%)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CEO들 “FTA 대응책 글로벌 인재·가격 경쟁력”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FTA(자유무역협정) 시대 대응책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와 가격경쟁력 강화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행하는 경영전문 월간지 ‘치프 이그제큐티브(Chief Executive)’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CEO 90명을 상대로 ‘FTA시대 기업의 대응전략’을 조사한 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인재역량 강화’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응답이 24%로 2위에 올랐고 ‘전략적 제휴’(16%), ‘통합 마케팅’(15%), ‘투자 확대’(8%), ‘기업문화 혁신’(8%) 순으로 뒤를 이었다.

FTA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EO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76%),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12%),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12%)이라고 내다봤다.

FTA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결과 ‘관심이 많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안다’(57%), ‘관심은 많지만 내용은 모른다’(36%), ‘별로 관심이 없고 언론매체에 알려진 사실 정도만 알고 있다’(7%) 순으로 집계됐다.

CEO들이 FTA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69%), ‘경영자초대회, 포럼 등 관련 커뮤니티’(16%), ‘FTA 관련 연구기관의 심층 연구보고서’(12%), ‘포탈, 지식사이트,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3%) 등이었다.

/연합뉴스